



HEADLINE NEWS

행정개혁을 겨냥한 '전자정부' 추진 (동경)

東京都는 향후 행정개혁의 방향을 설정하는 '都政개혁비전'을 지난 9월 8일 중간보고 형식으로 발표했다. 東京都에 따르면, '都政개혁비전'은 都 외곽단체나 제3섹터 등의 통합, IT(정보기술) 진보에 대응한 '전자都廳' 추진, 미시비시 은행과 같은 지정 금융기관 운영방식의 변경 등을 표방하고 있다.

또한 이 비전은 민간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 분담, 조직과 인사·급여제도 개혁, IT 활용과 직원들의 의식 개혁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전자都廳' 부문은, 중앙정부가 2003년에 '전자정부'를 도입키로 한 일정과 맞추기 위해 연내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日本經濟新聞, 9. 9)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인터넷을 통한 겨울철 수목관리정보 제공 (시애틀)
- ②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조경조례」 제정 및 「조경·녹화賞」 수여 (시카고)

도시환경

- ③ 에너지절약 및 기후개선을 위한 「에너지프로그램 2000 ~ 2003」 수립 (베를린)
- ④ 상수도서비스 불편사항에 대한 '보상청구권' 신설 (런던)
- ⑤ 누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위해 지하연료탱크 '업그레이드' (뉴욕주)
- ⑥ 환경친화형 「그린 빌딩」 정책 추진 (브리티시 콜롬비아)

도시교통

- ⑦ 신임市長의 반(反)승용차주의적인 교통 개혁안 발표 (런던)

사회복지

- ⑧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24시간 내 필히 해당가족과 '접촉'해야 (뉴욕)

행재정

- ⑨ 고용창출을 위한 민간주도형 「산업진흥비전 2000」 수립 (동경)
- ⑩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시민에게 좋은 이웃 賞 수여 (토론토)

① 인터넷을 통한 겨울철 수목관리정보 제공 (시애틀)

시애틀市는 겨울철 수목관리방법을 인터넷을 통해 관련부서 직원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市는 현재 거목, 잡목, 덩굴류 등을 대상으로 예방 차원에서의 유지관리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市소유 수목이 겨울철 빙설, 추위, 바람으로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치기 및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 수목에는 보호대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개인소유 수목에 대해서도 가지치기 및 점검을 지원하고 있다. 市는 이외에도 수목의 위치정보와 함께 새로운 수목의 식재, 조경, 수종별 유지관리, 수종선택, 공원의 수목조성 등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www.pan.ci.seattle.wa.us)

②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조경조례」 제정 및 「조경녹화賞」 수여 (시카고)

시카고市는 건축계획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조경조례(Landscape Ordinance)」를 제정해 보다 매력적인 '녹색도시' 조성뿐만 아니라 도시열섬 억제, 소음·대기 오염 저감, 재산가치 증대 등의 다목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조례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대상사업은 공원으로상의 관목 식재, 주차장·물품 하역장소·기타 자동차 접근가능지역 등에서의 조경이다.

아울러 시카고市 환경보전국과 시장직속의 조경녹화 기획팀은 공동으로 '정원속의 도시 조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조경·녹화대상 시상(施賞)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시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부문으로는 사유지 상업지역의 조경녹화와 기업체 참여에 의한 공공장소 조경을 비롯, 야생동물 서식을 위한 자연공간·공공기관·건물내부·옥상정원·산업단지 등의 조경이 있으며,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부문으로는 지역사회공동체·개별 주거지역·복합주택 조경녹화, 학교 운동장 녹화 등이 있다.

(www.ci.chi.il.us/streetsAndSan/Forestry/LandscapeOrdinance.html)

(www.cityofchicago.org/Environment/Natur.../LandscapeAwards.htm)

③ 에너지절약 및 기후개선을 위한 「에너지프로그램 2000~2003」 수립 (베를린)

베를린市 도시개발·환경보호위원회는 2010년까지 1인당 CO₂ 방출량을 '90년대비 25%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베를린 에너지프로그램 2000~2003」을 수립했다. 에너지관련 정책수립에 시민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는 「베를린에너지절약법」에 따라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환경기술시장에서 베를린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미래기술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경제 및 사회기구의 협력을 도모하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여러 방안을 시행한다. 아울러 2003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현재의 2배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혁신적인 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2003년까지 1억 마르크를 투자한다.

(www.bau.berlin.de/aktuell/pressemeldungen/st2000050901.htm)

④ 상수도서비스 불편사항에 대한 '보상청구권' 신설 (런던)

런던市는 '89년 제정된 「상하수도서비스공급법」을 더욱 강화한 수정법이 오는 9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상수도공급서비스의 불편사항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런던市는 '상수도 공급주체는 시민의 보상권리를 최소한 1년에 한번 이상 시민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수정법규정에 맞춰 '양질의 서비스 공급과 합당한 보상'을 전제로 하는 소비자 위주의 상수도공급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수정법에 따르면,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① 4시간 이상의 예정된 단수시 단수 48시간 전까지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② 시민이 서면으로 제기한 불편사항 또는 요금문의에 대해 10일 이내에 답신하지 않았을 때, ③ 예기치 않은 수도공급 중단사태가 12시간을 초과할 때이며, 시민들의 문제제기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런던市는 가정용 상수도 수용가에게 20파운드, 사업용 수용가에게 50파운드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www.press.detr.gov.uk/0008/0567.htm)

5] 누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위해 지하연료탱크 ‘업그레이드’ (뉴욕주)

미연방 환경보호청은 지하연료탱크의 누수로 인해 수질오염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88년부터 미 전역에 있는 3백만여 개의 지하연료탱크를 10년 내에 개선 또는 철거할 것을 의무화한 「지하탱크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그런데 최근 환경보호청의 조사 결과 지난 10년간 민간 지하탱크 소유자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지하탱크를 개선한 데 반해 州정부와 지방정부 사업소는 아직도 누수위험이 많은 낡은 연료탱크를 ‘업그레이드’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뉴욕주의 경우 州정부소유 탱크 중 74개만이 개선되었고 350개 탱크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The New York Times, 8. 8)

6] 환경친화형 「그린 빌딩」 정책 추진 (브리티시 콜롬비아)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BC)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그린 빌딩 BC(Green Buildings BC)」 정책을 추진, 정부소유 건물 및 시설에 대한 환경영향의 최소화, 입주자의 안전성 향상, 지역환경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그린 빌딩 BC」 정책은 신축건물뿐만 아니라 기존건물의 개장(改裝)도 대상으로 한다. 「신축 건물프로그램(New Buildings Program)」은 절수, 에너지 절약, 자재이용 효율화 등 지속가능한 건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개장프로그램(Retrofit Program)」은 국공립학교, 대학교, 보건소를 대상으로 조명, 냉난방, 화장실, 폐기물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에너지 및 물 이용효율을 높이고 있다.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장프로그램의 기대효과 조사 결과, 에너지절감 18%, 절수 24%, 연간 온실가스(Greenhouse Gas) 방출 감소량 230킬로톤으로 나타나, 연간 총비용 절감액이 3천4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다.

(www.gov.bc.ca/des/prgs/grnbuild.htm)

7] 신임市長의 ‘반(反)승용차주의’ 적인 교통 개혁안 발표 (런던)

리빙스톤 신임 런던市長은 최근 런던市の 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획기적인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 개혁안은 첫째, 정부안과는 달리 런던지하철의 민영화에 반대하고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며 둘째, 버스전용차로 전면 확대와 위반차량 단속을 통해 버스우선통행망을 구축하고 셋째, 대중교통수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중교통수단의 요금을 대폭 할인하며 넷째, 런던 중심가의 교통혼잡구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불필요한 승용차의 운영을 억제하기 위해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열렬한 ‘반(反)승용차주의자’인 신임 런던市長의 이와 같은 개혁안이 추진된다면 보수당 정권의 민영화 정책에 의해 퇴색되었던 대중교통수단의 공공성이 증대되어 런던市 대중교통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Traffic Technology International, 6·7월호)

8]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24시간 내 필히 해당가족과 ‘접촉’ 해야 (뉴욕)

그 동안 ‘아동학대’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을 받아 온 뉴욕市 아동복지국의 아동학대 관련 활동이 보다 신속해진 것으로 州정부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市 아동복지국의 24시간 내 ‘접촉률’이 96~97년 조사 때보다 7% 증가한 91%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州법에 따르면, 주(州) ‘아동학대’ 핫라인에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복지국은 해당아동의 가족과 24시간 내에 ‘접촉’해야 하고, 48시간 내에 직접 면담해야 하며, 7일 이내에 그 아동이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있지 않은지를 판단해야 한다.

(The New York Times, 8. 30)

9 고용창출을 위한 민간주도형 「산업진흥비전 2000」 수립 (동경)

東京都는 최근 산업 및 고용위기를 타개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東京진흥 프로젝트인 「산업진흥비전」을 수립했다. 이 비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행정 당국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인, 상점주, 지역사회 대표, NPO 등 주민들과 공동으로 IT(정보기술) 산업을 육성시킨다는 점이다. 이 비전의 정책방향은 행정주도에서 민간·지역 주도로, 나열식 사업전개방식에서 주력사업 중심으로, 사업지향에서 성과지향으로, '정보쇄국'에서 'IT 혁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책목표는 ① 새로운 산업구조의 형성 및 기존 산업의 재활성화, ② 지역경쟁력 확대, ③ 자연순환을 강화하는 산업 진흥, ④ 고용 창출과 확보이다.

(廣報 東京都, 9. 1)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시민에게 「좋은 이웃賞」 수여 (토론토)

토론토市는 보다 쾌적한 주거공간과 일터, 쉼터로 만드는 데 기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좋은 이웃賞」을 수여하고 있다. '92년에 제정된 이 賞은 그 동안 50여명의 시민들에게 상패와 상금 2천 달러가 각각 수여되었다. 올해 「좋은 이웃賞」 시상식은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축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w4.metrotor.on.ca/icsite/newsrel.nsf/7017df2f20edbe2885256619004e428e/d7065165a78351c385256935004eb200?OpenDocument)